

ZOOM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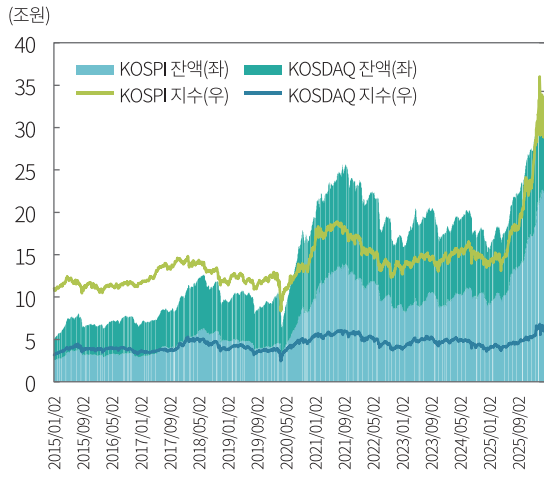
국내 증시 신용거래 현황 및 시사점

최근 국내 증시는 신용거래 잔액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 중심으로 신용자금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저금리 환경 지속과 투자 접근성 개선, 대체 투자처 부족 등으로 인해 개인투자자의 시장 유입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 아울러 AI, 반도체, 조선 및 방산 등 주도 테마 중심의 투자 수요와 단기 매매 성향이 결합되면서 레버리지 활용이 증가하였다.

신용거래는 상승기에는 매수 수요를 확대하지만 하락기에는 반대매매를 통해 매도 압력을 증폭시키는 경기순응적 특성을 지닌다. 최근에는 미수금이 실제 반대매매로 빠르게 전환되며 리스크가 시장에 즉각 반영되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다. 개인 중심의 시장 구조와 제한적인 헤지 수단을 고려할 때, 향후 레버리지 축소 과정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와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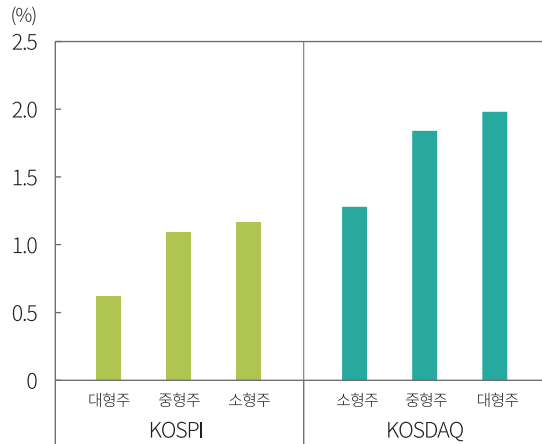
- 최근 국내 증시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참여 확대가 지속되면서 신용거래 잔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
 - 국내 증시의 신용거래 잔액은 2020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했다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025년 중반부터 다시 빠르게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
 - 코로나19 시기 개인투자자의 대규모 유입으로 2021년 8월까지 급증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2025년부터 재차 증가하여 상승세가 강화
 - 2026년 4월 24일 기준 신용거래 잔액은 35.4조원을 기록하며 연초 27.4조원 대비 29% 증가했고 1년 전보다는 2배 수준으로 확대
 - 최근 신용거래 증가세는 유가증권 시장 24조원, 코스닥 시장은 11조원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집중되는 모습
 - 유가증권 시장은 연초 대비 43%, 전년대비 140% 증가한 반면, 코스닥 시장은 각각 7%, 24%로 최근 신용거래 확대는 유가증권 시장을 중심으로 전개
 - 기업 규모별로는 유가증권 상장기업은 소형주의 신용거래 잔고 비율이 높고, 코스닥 상장기업은 규모가 큰 기업에서 높게 나타남
 -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 비율은 여전히 코스닥 시장이 유가증권 시장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 코스닥 시장은 중소형 성장주 중심의 시장으로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낮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며, 레버리지 활용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그림 1〉 국내 증시 신용거래 잔액



자료: 금융투자협회

〈그림 2〉 기업 규모별 신용거래 잔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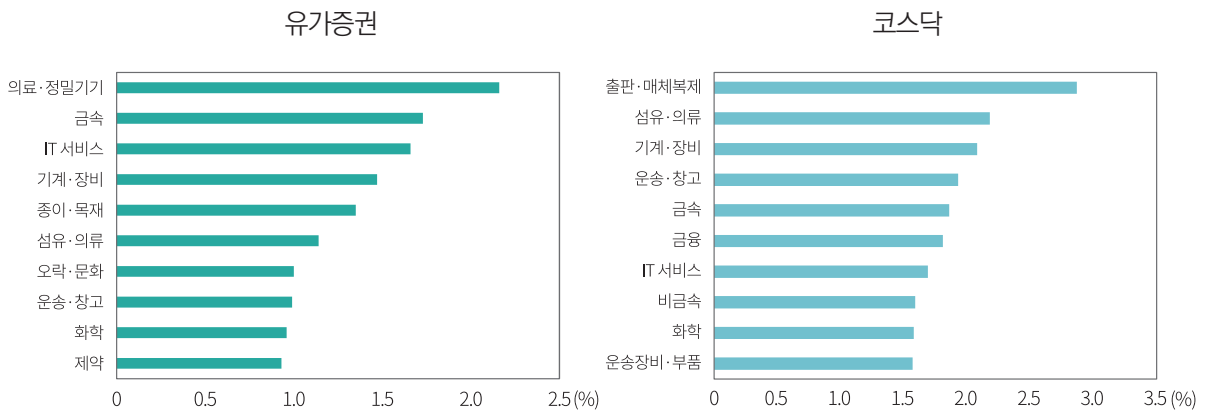
주 : 1) 시가총액 상위 100위까지 대형주, 101~300위 중형주, 301위 이하 소형주
 2) 신용잔고 비율=(신용거래 매수 주식 수/전체 상장주식 수)×100
 3) 2026년 4월 24일 기준

자료: 코스콤(CHECK)

— 신용자금은 다양한 업종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가운데, 업종별로 편차가 나타나는 모습

- 의료·정밀기기, 출판·매체 복제, 기계·장비 및 IT서비스 등에서 신용잔고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일부 업종은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업종 간 차별화가 관찰
- 최근 AI, 반도체, 조선, 방산 등 시장에서 관심이 확대된 분야를 중심으로 자금이 집중된 흐름이 반영된 결과

〈그림 3〉 업종별 신용거래 잔고 비율



주 : 2026년 4월 24일 기준

자료: 코스콤(CH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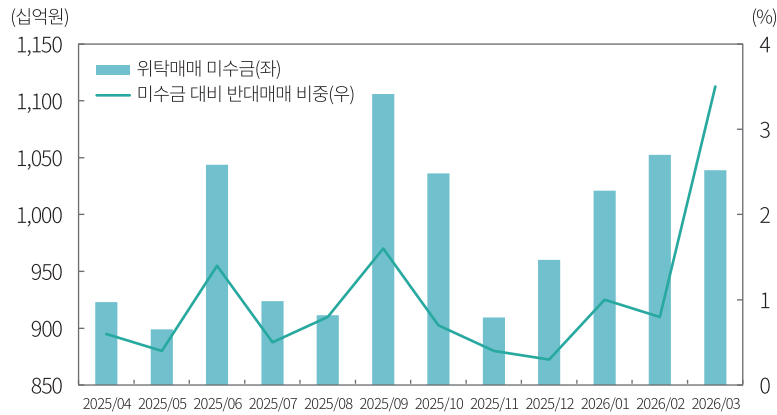
□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와 주도 테마 중심의 투자 수요, 단기 매매 성향이 결합되며 레버리지 활용 증가로 이어져 최근 신용거래 잔고 확대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

-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환경 지속과 대체 투자처 부족으로 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선호가 확대되면서 시장 참여 및 거래 비중이 증가
 - MTS의 고도화와 비대면 계좌 개설 확산 등으로 투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 장벽이 낮아졌고, 이는 신규 투자자 유입과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는 요인
 -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및 가격 상승 부담 등으로 대체 투자처의 매력도가 제한되면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
 - 이러한 변화는 거래대금 및 투자 주체별 비중 측면에서 개인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한편,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는 개인투자자의 특성과 맞물려 레버리지 활용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이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 더해 최근에는 특정 산업 및 테마를 중심으로 한 주도주 장세가 전개되면서 단기 수익 기회를 추구하는 투자 행태가 강화된 점도 신용거래 확대에 영향
 -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분야를 중심으로 주가 상승 기대가 형성되면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이 과정에서 신용거래 활용이 증가
 - 또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가격 변동을 활용한 단기 매매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투자 전략 역시 레버리지 수단인 신용거래와 결합

□ 신용거래는 시장 상승기에는 매수 수요 확대, 하락기에는 반대매매를 통한 매도 압력 증폭이라는 경기순응적·비대칭적 특성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에는 반대매매로의 전이 속도가 가속화

- 신용거래는 담보가치 변동에 연동되는 레버리지 구조로 자산 가격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확대 및 축소되는 경기순응적 메커니즘이 작동(<그림 1> 참고)
 - 주가 상승 시 개인투자자 유입과 신용용자 증가를 통해 추가 매수 수요와 유동성을 공급하며 가격 상승을 강화
 - 반면 주가 하락 시 담보가치 하락으로 반대매매가 발생하여 매도 압력을 확대하고, 강제 청산이 집중될 경우 연쇄적인 디레버리징으로 이어질 가능성
- 최근에는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이 크게 증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미수 상태에 머물던 자금이 실제 청산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확대
 -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상승과 중동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으로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금액의 비중이 확대
 - 이는 잠재적 신용리스크가 실제 매도 압력으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음을 시사

<그림 4>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비중



자료: 금융투자협회

□ 한편,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신용거래 확대와 함께 경기순응적 레버리지 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나, 레버리지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

- 미국은 2025년 증시 상승으로 인해 마진부채 규모가 2025년 12월 기준 1.23조 달러를 기록하며 연초 9,373억 달러 대비 30.7% 증가했고 2026년 2월에는 1.25조 달러 수준까지 확대¹⁾
- 이처럼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마진거래는 시장 상승기에는 확대되고 하락기에는 축소되는 전형적인 경기순응적 패턴
- 다만, 미국 시장은 기관투자자와 장기 투자자 비중이 높고, 다양한 파생상품 및 헤지 수단이 발달되어 있어 레버리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분산
 - 미국 주식시장에서 연기금,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는 전체 주식 거래 및 보유 비중에서 약 60~70% 수준을 차지
 - 기관투자자는 패시브 투자, 장기 포트폴리오 운용, 리밸런싱 전략 등을 중심으로 거래를 수행하여 단기 가격 변동에 따른 매매 출입이 상대적으로 제한
- 또한 초기 증거금 규제, 유지증거금 제도 등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구축
 - Regulation T에 따라 투자자는 주식 매수 시 최소 50% 이상의 자기자본이 요구되어 마진부채의 과도한 확대를 제한
 - 또한 유지증거금 제도(FINRA Rule 4210)를 통해 자산 가격 하락 시 담보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브로커의 재량에 따라 즉시 강제 청산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추가 증거금 납입(margin call)을 요구하여 대응 시간을 제공
- 이러한 다층적 관리 체계는 반대매매가 단기간에 일괄적으로 집중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분산되도록 유도

1) FINRA Margin Statistics

□ 국내 시장은 개인투자자 중심 구조로 인해 레버리지 축소 과정에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신용거래의 위험 특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대응이 필요

- 국내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높고, 투자 기간이 짧은 편이며, 레버리지 활용도가 높다는 특징을 보유
 - 시장 하락 시 레버리지 축소가 빠르게 진행되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코스닥 시장과 같이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시장에서 이러한 특성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
- 국내에도 추가담보 요구와 강제청산을 중심으로 한 신용리스크 통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기본적인 구조는 미국과 유사하나 일정 부분 차이가 존재
 - 미국은 연준 규제(Regulation T)와 FINRA 규정이 결합된 다층적 증거금 체계, 높은 기관투자자 비중, 다양한 파생상품 및 헤지 수단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반면, 국내는 투자 주체의 구성, 헤지 수단의 다양성, 선제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
 -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국내 시장은 레버리지 축소 과정에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
- 따라서 투자자 인식 제고와 거래 행태 점검, 정책적 모니터링 강화 및 시장 안정화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

선임연구원 홍지연